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여름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 제: 교회의 기도

일 정: 8.15(목) ~ 16(금)

장 소: 연못이 있는 펜션(가평)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7/21)	다음 주(7/28)	8/4
기 도	주일오전예배	오숙현 성도	이윤경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오숙현 성도
성경 봉독		편재천 성도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식사 준비		이강진 순	장윤경	이윤경 순
정리		이윤경 순	김윤기	오숙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29호 2019.7.21.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8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7장, 찬송가 380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19편 145-160절	편 재 천	성 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62장 1-7절	김 윤 기	목 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286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오 숙 현	성 도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황근하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 5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9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51편 10-12절
 설 교: 정한 마음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9주일 - 성찬에 관하여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답: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79문: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써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 말씀 요약 사 62:1-7,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기를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1절).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2절). “버림 받은 자”에서 “헷시바”로 “황무지”에서 “뿔라”로 새롭게 부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4,5절). 이와 같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엡 5:25).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은 자신을 주심까지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까지 수고하기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엡 5:27).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의 일에 사람들을 동참하게 하십니다(6,7절). 파수꾼과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동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쉬지 않고 간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늘 동일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눅 18:1).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눅 18:7,8). 또한 예수님은 가르치신 바대로 시간을 떼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남을 위한 가장 큰 봉사는 그를 위해 기도함”이라고 하였습니다(박윤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상대방을 위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에 동참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